

삼태극의 의미고찰

김명희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투고일자 : 2011. 12. 12 · 심사일자 : 2012. 02. 09 · 게재확정일자 : 2012. 02. 21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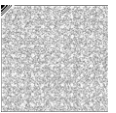
서울 올림픽의 휘장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양 중의 하나로 삼태극이 사용되고 있다. 삼태극은 태극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철학적 규명없이 일부 종교단체나 지식인들에 의해 '천지인'이라는 삼재론으로 혹은 '천지인 조화사상'이라는 넓은 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삼태극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조선은 건국과 더불어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나, 이념의 테두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서는 노장과 불교, 무속 등을 묵인하여왔다. 그리하여 태극 문양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유교적 이념이 드러나야 하는 공식적인 곳에서는 이태극 문양을 사용하고, 왕릉과 같은 사적인 곳에서는 삼태극 문양을 새겨왔음을 밝혀 놓았다.

이와 같이 문양을 분리 사용한 이유를 규명해보기 위하여 태극의 변화 발전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동양(한·중·일)에서는 태극 문양을 우주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양은 한당시대까지는 삼태극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도 『한서』 「율력지」 속에서 '음양덕(陰陽德)'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사에서 등장한 『고태극도』 속에서는 이태극 속의 흰점으로 문양이 변화되어 나타나며, 그 의미도 '음양과 생기'로 표현된다. 그러다 유가 사상이 자리 잡은 송대 이후로는 '음양과 리'로 그 해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리는 '생기'와 달리 비실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음양과 리'를 문양으로 표현할 때는 이태극으로 표현하게 되었음을 논해 놓았다.

결론적으로 삼태극은 '음양덕' 혹은 '음양생기', '음양무극' 등을 문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영(靈)의 세계를 인정하는 도가와 불교의 사상 속에서 주로 발달하였으며 '기'를 본체로 하는 세계관이다.



머리말

주돈이의 『태극도설』은 주자(朱子)에 의해 유가의 우주론으로 채택되어 거대한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이후 태극은 동아시아에서 우주 본체론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사상의 근원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태극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태극(二太極)⁰¹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태극 사용은 조선시대 이래 이태극과 삼태극(三太極)⁰²이 공존하며 널리 사용되어 왔다. 현재에도 이태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의 문양으로 사용되고 있고, 삼태극은 이태극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의 정전(正殿)과 침전(寢殿) 들계단에, 그리고 4대문의 대문과 대문의 누각, 향교나 서원의 대문, 종묘, 능의 홍살문, 사찰, 일상 용품 등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양 중의 하나로서 서울올림픽의 상징 휘장에서 볼 수 있다.

이태극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선 500여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사상들이 있어 철학적으로 정밀하게 해석되고 있다. 반면, 이태극 못지않게 많이 쓰이고 있는 삼태극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 없이 일부 종교단체나 지식인들에 의해 ‘천지인’ 혹은 ‘천지인 조화사상’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삼태극은 누가 보아도 태극에 속한다. 우리가 이태극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우주 본체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삼태극은 ‘천지인’이라는 삼재(三才)로 풀이하거나 ‘천지인 조화 사상’이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오랜 문화유산으로 남아 현재에도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삼태극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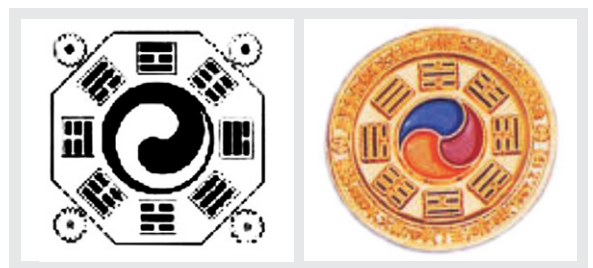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삼태극의 의미를 규명해 보는 데 있다. 논문의 목적을 위해 먼저, 조선에서 사용된 이태극과 삼태극 문양의 사용 정도를 알아보아 사용 목적과 의미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그리고 중국에서 태극은 삼태극에서 이태극으로 분화·변화되어 갔는데 변화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서 이태극과 삼태극의 의미를 추출해 보겠다.

조선의 태극

아래의 오른쪽 문양은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문양인데, 삼태극 주위에 팔괘가 배치되어 있다.⁰³ 또 왼쪽에 있는 문양도 이태극 주위에 팔괘가 배치되어 있다.⁰⁴ 이와 같이 조선에서의 태극은 이태극이든 삼태극이든 모두 본체를 상징한 것이지 ‘천지인’ 혹은 ‘천지인조화사상’으로 상징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이태극과 삼태극 문양이 조선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비교적 많이 남아있으나, 궁궐, 종묘, 사찰, 서원 등에서 흔재하여 나타나 그 쓰임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

조선왕조 4대 궁궐 중 창덕궁 대조전에는 삼태극 문양이, 창경궁 명정전에는 이태극과 삼태극 문양이, 경복궁 근정전 계단에는 이태극과 사태극 문양이, 창덕궁 대조전(침전(寢殿))과 주합루의 계단에는 삼태극



01 현재 우리나라 국기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음·양 2기로 표현되는 태극을 지칭함. 음양태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02 이태극과 구별하여 삼태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삼원태극이라고도 한다. 하나의 원이 3개로 분할되어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으로 표현되며, 소고나 북 같은 악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서울올림픽 상징 휘장으로도 사용되었다.

03 삼태극 주위에 팔괘 내지 사괘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궁중예복이나 기와, 베타모, 갓집 등 여러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04 그림은 <http://theologia.pe.kr/> 에서 인용

문양이, 그리고 종묘의 정전 문설주와 영녕전 태실 문설주에도 삼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어, 이태극과 삼태극 문양이 고루 나타나고, 드물게는 사태극 문양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궁궐과 서원의 대문, 그리고 사찰의 계단 소맷돌과 천장과 벽화, 서까래 등에서는 이태극과 삼태극이 혼재해 사용되고 있어 의미를 찾기 위한 분류가 어렵다. 더구나 조선 시대 유물 중 궁궐과 종묘, 서원 등에 화재로 인한 재건과 보수, 중건 등이 이루어져 시간적 흐름에 따른 문양의 변화도 알아보기가 어렵다.

반면, 조선 왕릉은 능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영역적 의미로 인해 518년이라는 조선의 긴 역사를, 다른 유물에 비해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어 그 의미를 찾아보기엔 좋은 자료다. 따라서 왕릉 속에 있는 문양을 통한 사상적 해석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 조사에 착수했다.

왕릉에는 태극 문양이 나타나는 곳이 더러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홍살문과 정자각 신계(神階)이다. 홍살문은 문화재정보센터⁰⁵ 용어사전에 의하면 궁전, 관청, 능 같은 곳에 두 기둥을 세우고 위에 세로 살대를 박아 붉은 칠을 한 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홍살 가운데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왕릉 관련 논문을 쓴 이영의 조사에 의하면 능, 원, 묘⁰⁶ 52개소 중에서 삼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는 곳은 49개소이고, 이태극이 새겨져 있는 곳은 장릉(莊陵) 인릉(仁陵) 2개소라고 소개하고 있으나,⁰⁷ 본 연구자가 능을 조사하면서 둘러본 바로는 인릉을 비롯한 모든 곳이 삼태극 문양으로 그려져 있었다. 또한 1970년대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한 능원단청이라는 보고서에는 홍살문이

있는 30개소 중 이태극 문양이 있는 곳은 16개로 나타나 있다.⁰⁸ 이와 같이 짧은 기간의 홍살문 조사에서도 변화가 많은 것으로 보아 목재 건물에 의한 연구는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홍살문도 근거 없이 세워 지지는 않았으며, 또한 현재 모두 삼태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거나 그 시대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능 이외에도 홍살문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 전주 경기전(慶基殿)의 내신문(內神門)⁰⁹에서 홍살의 가운데에 아(亞)자와 만(卍)자 문양과 더불어 태극 문양이 나타난다. 이것에 대해 이영은 승유억불을 국시(國是)로 했던 조선시대에 유교가 도교, 불교, 무당 등에 영향을 받은 건축적 예라고 주장하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¹⁰

이러한 목조 시설물 외에 석조물도 왕릉에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은 각각의 왕릉 구성과 함께 설치 조각되기 때문에 그곳에 새겨진 문양(태극)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읽어 낼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자각의 신계에 새겨져 있는 태극 문양이다.

정자각은 제례 때 제수를 진설하고 제사를 드리던 건물로 위에서 보면 ‘정(丁) 자와 같다 하여 정자각(丁字閣)이라 부른다. 정자각에는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계단이 세 개가 있다. 이 중 동계(대부분 동쪽에 위치하며 올라가는 계단이다)와 서계(대부분 서쪽에 위치하며 내려오는 계단이다)로 구분되는 계단은 왕과 제관 등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르내리는 계단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동계 바로 옆에 있는 신계는 혼령이 오르내리는 계단이다. 이 계단 오른쪽과 왼쪽에 소맷돌을 두어

05 <http://www.cha.go.kr/>(문화재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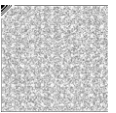
06 조선시대 왕실의 묘제는 능·원·묘로 구분했다. 왕·왕비의 무덤은 능으로, 왕의 私親과 세자와 세자빈의 무덤은 원, 대군·공주·옹주·후궁 등의 무덤은 묘라고 칭한다. 이는 그 위계에 따라 그 명칭을 정한 것이다.

07 이영, 1992, 「조선시대 왕릉릉역의 건축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원박사논문, p.113.

08 이영, p.117.

09 태조의 영정을 모시는 유교적 사당이다.

10 이영, 위의 논문, p.111.



문양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였는데, 이 소맷돌의 안팎에 태극(이태극, 삼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¹¹

조선 왕릉은 모두 42기를 이룬다. 이는 27대에 이르는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의 능까지 포함한 숫자이다. 이들 왕릉 중에서 현재 북한에 있는 태조



(太祖)의 원비(元妃) 신의고황후(神懿高皇后)의 제릉(齊陵)과 제2대 왕인 정종·정안왕후의 후릉(厚陵)을 제외하고, 영친왕의 생모와 아들이 묻혀있는 영취원과 승인원을 포함시켜 정자각이 있는 능(陵)과 원(園)을 조사하였더니 43기(基)였다.¹²

이 중 이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는 신계는 7군데, 삼태극 문양이 있는 것은 27군데, 마모되거나 문양자체가 없는 것이 7군데, 이태극과 삼태극이 각각 하나씩 있는 것은 1군데, 그리고 연화당초무늬로 추정되는 곳이 1군데였다. 이것을 도표로 간략히 나타내면 주석에 있는 표와 같다.¹³

신계에 이태극 문양이 나타난 7기(基)의 능 중에서 4기(태조, 세종, 문종, 세조의 능)는 초기에 이루어진

11 순창원 신계의 문양을 살펴보면 계단 소맷돌의 좌우 안쪽(아래 그림의 왼쪽은 홍살문의 삼태극처럼 원을 일정하게 세 면으로 나누어 소용돌이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 좌우 바깥쪽(아래 그림의 오른쪽)은 전형적인 단순 소용돌이 문양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시작 부분을 세 개로 함으로써 소용돌이의 시작점이 30이라는 것을 강조한 듯하다. 이와 같은 순창원 신계의 문양은 3원 분할의 삼태극이 소용돌이 문양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소용돌이 문양은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양 중의 하나이며 자연에 존재하는 물체(태극나방, 외산형 조개류, 넝쿨 식물, 고사리 등의 동식물)나 현상(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별의 움직임, 태풍, 물의 소용돌이, 지구의 자전축, 은하계 등을 통해서 흔히 볼 수 있다.

12 능은 모두 정자각이 설치되어 있으나, 원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능명	구분		모양 및 비고	능명	구분		모양 및 비고	
건원릉	1	태조	이태극 4개	장릉	추존	원종	비	없음
정(貞)릉		태조 계비강씨	삼태극 4개(현종때 복구 조성됨)	장릉	16	인조	비	삼태극 4개
후릉	2	정종	북한	휘릉		계비조씨		삼태극 4개
현릉	3	태종	비	영(寧)릉	17	효종	비	이태극 4개
영(英)릉	4	세종	비	승릉	18	현종	비	없음
현릉	5	문종	비	익릉		숙종의비		삼태극바깥 2개
장(莊)릉	6	단종		명릉	19	숙종	계비	삼태극 4개
사릉		단종 비	삼태극 4개(숙종때 복위 조성됨)	의릉	20	경종	계비	삼태극 4개
광릉	7	세조	비	혜릉		경종비 심씨		삼태극 4개
공릉		예종비	삼태극 4개	홍릉		영조비 서씨		삼태극 4개
창릉	8	예종	비	영릉		영조장자		삼태극 4개
경릉	추존	덕종	비	원릉	21	영조	계비	삼태극 4개
순릉		성종의비		응릉	추존	장헌세자와 빈		삼태극
선릉	9	성종	계비	건릉	22	정조	비	삼태극
	10	연산군		인릉	23	순조	비	삼태극 4개
희릉		중종계비	마모(태극흔적)	수릉	추존	문조	비	이태극 4개
태릉		중종계비(문정왕후)	바깥 2개만 삼태극	경릉	24	현종	비, 계비	원:이태극, 오:삼태극, 가운데:無
정(靖)릉	11	중종		예릉	25	철종	비	삼태극 4개
효릉	12	인종	비	홍릉	26	고종	비	삼태극
순창원		명종세자부부	소용돌이 삼태극	유릉	27	순종	비	삼태극
강릉	13	명종	비	영취원		영친왕 생모		삼태극 4개
목릉	14	선조	비	승인원		영친왕 아들		삼태극 4개
	15	광해군						
			묘					

· 정자각 신계 문양에 대해서 이영은 삼태극이 29개소, 마멸되어 확인이 어려운 곳을 9개소라고 분류해 놓고 있다. p.119.

것이다. 이 4기의 신계에 이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은 고려 왕릉 중 가장 잘 정비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현정릉(玄正陵)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현정릉에 있는 이태극 문양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이다.¹⁴ 초기 4릉의 신계에 있는 이태극을 제외하고 나면 조선의 능에서는 태극이 거의 3원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초기의 2원이 사용되던 것과는 달리, 조선의 문물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사상적 체계가 이루어진 뒤에는 삼태극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의 서론에서 피력했듯이 우리는 태극이라고 하면 이태극을 떠올린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극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태극기는 조선 마지막 왕인 고종이 만들었는데, 태극을 2원 형태로 만들었다.¹⁵ 따라서 조선의 공식적인 태극은 이태극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릉의 신계에서는 삼태극을 사용하여 왔다. 이는 조선 사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외교나 공식행사에서 사용하는 태극과 능제에서 사용하는 태극으로, 조선에서는 태극이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태극을 이태극 문양과 삼태극 문양으로 분리해서 사용한 이유를 규명해보기 위해 장을 달리하여 태극의 변천에 대해 고찰해보자.

태극의 역사적 변천

태극이라는 용어는 역경의 『계사상전』¹⁶에 나오는데, 태극이 하나의 혼합 완전한 개념¹⁷으로 나오며, 문양은 그러저 있지 않다.

음양태극이 역의 핵심 이론으로서 동양 사상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중국 북송의 유학자 주렴계(1017~1073)의 『태극도설』에 의해서이다. 주렴계의 『태극도설』은 역의 태극, 음양설과 오행을 종합하여 만물의 생성 과정을 ‘태극(太極) → 음양(陰陽) → 오행(五行) → 만물(萬物)’로 설명한 철학서이다. 여기서 연계는 태극을 우주를 형성하는 음양의 두 원기로 문양화 하였고, 이후 태극은 음양이 교차된 이태극으로 한·중·일 삼국에서 고착되어져 왔다.

그러나 전한(前漢) 유흠(劉歆)의 『삼통력』을 비롯한¹⁸ 『한서』 「울력지」 본문에 있는 ‘태극원기함삼위일(太極元氣函三爲一 : 태극 원기는 셋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하나가 된다.)’이라는 글과, 삼국시대 위(魏)나라 학자인 맹강과 당나라 학자 안사고의 주석을 통해서 보면, 주렴계의 『태극도설』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삼태극이 태극 이해의 보편적 방식이었다.¹⁹

당나라 시대까지도 태극이 3기를 함유한 것으로 해석되었다면, 언제부터 태극이 음양 2기만을 함유한 음양태극의 개념으로 바뀐 것일까? 우실하는 그 출발점이

14 건원릉은 고려 왕릉 중 가장 잘 정비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玄正陵 제도를 기본으로 조성되었으며, 이후 조선 왕릉 제도의 표본이 되었다. 기본 능제는 현정릉을 따르고 있으나 석물의 배치와 장명등의 조형 등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양식의 도입으로 일정한 변화를 주어 새 왕조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봉분 주위로 곡장을 두르는 방식은 조선시대의 능제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며, 석물의 조형은 남송 말기의 중국풍을 따르고 있다.

출처 : http://www.cha.go.kr/newinfo/sub03/pa_donggu.jsp?catmenu=N_03_02_02 (문화재정보센터 / 능종합정보 / 동구릉) 이 외에도 건원릉 봉분을 보호하기 위한 병풍석이 봉분하단에 설치되어 있는데 12각호석의 각 면에는 渦雲文 가운데 獸冠人身의 12支神象을 앙각하고 좌우 귀틀에는 각각 이태극이 함께 있는 靈譯과 靈杵文을 앙각했다. (따라서 태극 문양은 좌우 양면이 12개로서 총 24개가 새겨져 있다.) 이영에 의하면 이는 중요한 佛具로써 전통적인 12자신상과 함께 佛力으로 시약한 것을 물리쳐 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능에는 고려의 불교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불교뿐만 아니라 고려 이전부터 꾸준히 영향을 미쳐온 도교와 무속 문화가 계속 잔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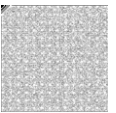
15 <http://www.songpr.com>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의 유래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태극기는 박영효가 주도한 작품이 아니라 고종의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새삼 밝혀졌기 때문이다. 1882년 10월 2일자 일본 도쿄에서 발행된 일간신문「시사신보」(1882년 3월 창간, 1936년 폐간)는 당시 일본을 방문한 박영효 수신사 일행과 기자회견을 갖고, 태극기는 자국의 국기를 모방하려는 청나라의 압력을 뿌리치고 고종이 직접 도안을 하고 색깔까지 지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박영효는 고종이 구상한 작품을 고종의 지시에 따라 일본으로 가던 도중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시사신보 기사는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 태극기의 역사를 바로 잡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최초의 태극기가 게재된 시사신보 축쇄판을 동경도립중앙도서관에서 태극기 연구가 송명호씨가 단독 입수, 116년만인 1997년 8월 14일 KBS 밤 9시 뉴스 및 15일 전국 일간지에 공개되었다.

16 『계사상전』, 제11장,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태극은 양의(兩儀 : 음양)를 낳고, 양의는 四象을 낳고, 사상은 八卦를 낳고 팔괘에서 만물이 생긴다.”

17 노사광, 1987, 정인지 역, 『중국철학사』(송명편), 탐구당, p.111.

18 김상섭, 2001, 『태극기의 정체』, 동아사이, p.151.

19 우실하, 2003, 『최초의 태극 관념은 음양태극이 아니라 삼태극 / 삼원태극이었다』 『동양사회사상』 제8집, pp.5~37.



송대 성리학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데,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²⁰ 이에 태극의 문양이 삼태극에서 이태극으로 바뀌게 되는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고, 문양을 통한 변천 과정도 살펴보자.

1. 태극 변천의 사상적 배경

삼태극이 이태극으로 전환하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 가장 먼저 송대의 성리학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성리학 성립이후 태극 논의가 '기' 중심에서 '리' 중심으로 분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성리학 이전 한유학자(漢儒學者)들은 태극 사상을 '원기'로 해석하며 우주 발생의 최초 본원으로 여겼으며,²¹ 송나라 진덕수의 말을 인용해보더라도 주자(周子) 이전 사람들은 태극을 논할 때 대개 기(氣)로써 말하였다.²² 이것은 앞으로 살펴볼 『한서』 「율력지」의 '태극원기, 함삼위일'과 그 연원이 통하며, 또한 이 사상들이 당나라까지 이어져 그 흐름 또한 일관된다.

그런데, 성리학 성립에 큰 역할을 한 염계의 『태극도설』은 태극의 해석이 '기'와 '리'로 되는 분수령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태극도설』 서두의 '무극이태극'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염계 이전에 보편적이었던 3원기로서의 태극 개념이 '무극이태극'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음양무극' 혹은 '음양리'로 분화하기 때문이다.

이 '무극이태극'은 논쟁으로 유명하나, 그 내용은 여러 논문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논쟁 전반에 대한 것은 생

략하고, 여기서는 태극 사상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요지만 가지고 살펴보겠다. 주희와 육상산이 벌인 '무극이태극'에 대한 논쟁에서 육상산의 주장은 '무극이태극'을 '자무극이위태극(自無極而爲太極)'으로 해석하고, 주희는 '무극이태극'에 대해 '무형이유리(無形而有理)'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한다.²³

육상산의 해석 방식은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된다.'로 풀이되어, 무극은 본체로서 무형무상(無形無象)의 최고 정신 실체가 된다.²⁴ 이 무극은 『중국철학사下』에서도 무형무상의 최고 실체를 가리키고, 태극은 최대의 통일체를 가리킨다고 본다.²⁵ 이때 무극의 실체성은 문양으로 표현할 때 음양2기와 함께 균등하게 삼원태극으로 표현되기도 하고,²⁶ 혹은 앞으로 살펴볼 『고태극도』처럼 음양2기 속에 또 다른 '생기(生氣)'로 표현하게 되기도 한다.

반면, 주희의 관점은 '무형의 리가 있다'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리는 무성무취(無聲無臭)로써 형체도 없고 방소도 없고 동정(動靜)도 없으면서 유형적 세계를 빚어내는 기의 활동 속에 내재하는 것인데, 다음 글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하늘 위에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나, 실로 조화의 바탕(樞紐)이며 만물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무극하되 태극하다고 한 것이며 태극 밖에 따로 무극이 있는 것은 아니다.²⁷

태극이라는 것은 다만 이 음·양 속에 있는 것인데,

20 우실하, 위의 논문, 같은 쪽, 관련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음양론에 오행론을 결합한 주례계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이,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자(朱子)에 의해서 유가(儒家)의 우주론으로 채택됨으로써 음양 2기만을 함유한 음양태극 개념이 유가 계열의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런 음양 2기를 함유한 음양태극 개념은 이기론(理氣論)과 맞물리면서 유가의 우주관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고, 송대 성리학의 형이상학은 철저히 이기론에 입각한 2분법의 논리로 전개된다. 이와는 반대로 도가(道家)에서는 3기를 함유한 태극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3·1철학'으로 발전시켜 간다."

21 여기에 대해서는 김진근, 1996, 『기철학의 집대성 왕부지의 주역 철학』, 예문서원, IV - 다 - 3 '태극'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22 영인본, 『備旨具解原本周易』 卷數(조선도서주식회사 편집부), 二以會간, 1982, p.42, "西山眞氏曰, 朱子此言可謂有功於學者, 大抵自周子以前, 凡論太極者, 蓋以氣言"; 조민환, 2001, 「주자의 노자관」, 『동양철학연구』 제24집, 동양철학연구회, p.183, 재인용

23 한국동양철학회 편, 1982,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p.117.

24 石詒 外, 1992, 『中國宋代哲學』, 河南人民出版社, p.562; 박응렬, 1996, 「주례계의 태극론에 관한 연구」, p.64, 재인용

25 北京大中國哲學系編, 1980, 『中國哲學史(下)』, 北京 中華書局, p.50; 박응렬, p.66, 재인용

26 삼원태극 문양은 송대 이전 '태극원기, 함삼위일' 사상이 태극사상으로서 보편적이었을 때 주로 사용되었다.

27 주자, 『태극도설해』 上天之載, 無聲無臭, 而實造化之樞紐, 品彙之根柢也, 故曰無極而太極, 非太極之外復有無極也

지금 사람들이 음·양 위에 따로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여 이것을 태극이라고 함은 그릇된 것이다.²⁸

주희는 리를 태극으로 보고 리(태극)가 음, 양이라는 유형적 기에 내재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비실체성의 리는 문양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음양2기만 나타나 이태극 문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가역(道家易)에서 무극 차원의 기를 문양 속에 나타내 왔듯이 유가역(儒家易)에서도 이것이 리(理)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양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한 예로 래지덕의 『원도』를 들 수 있다.²⁹

그 외에도 유가의 태극관이 역경의 ‘역유태극 시생양의 양의생사상 사상생팔괘(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에 기저를 두고 있어 이분법적 사유 틀에 맞게 이태극 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희도 역경의 태극론에 바탕을 둔 사유를 전개하여 ‘일생이 이생사 사생팔(一生二, 二生四, 四生八)’로 전개되지 않는 노자 42장의 ‘이생삼(二生三)’을 다음과 같이 문제 삼는다.³⁰

一은 곧 二를 낳고 二는 곧 四를 낳는다. 그런데 노자는 도리어 二가 三을 낳는다고 하였으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³¹

이것은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로 전개되는 노자의 사고방식이 ‘양의생사상(兩儀生四象)’과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

는 것이다.³² 이상과 같이 성리학이 일어나기까지는 ‘기’ 사상을 중시하여 삼태극 문양이 사용되었고, 그 이후는 이태극 문양이 사용될 수 있는 사상적 연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삼태극의 세 원기

『한서』 「율력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³³

태극 원기는 셋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하나이다. 극(極)은 가운데요, 원(元)은 시작이라. 12진(辰)으로 행하여가 되, 시작은 자(子)에서 비롯된다. 축(丑)에서 3배를 하면 3을 얻고, 인(寅)에서 3배를 하면 9를 얻고, 묘(卯)에서 3배를 하면 27을 얻고, 진(辰)에서 3배를 하면 81을 얻고, 사(巳)에서 3배를 하면 243을 얻고, 오(午)에서 3배를 하면 729를 얻고, 미(未)에서 3배를 하면 2,187을 얻고, 신(申)에서 3배를 하면 6,561을 얻고, 유(酉)에서 3배를 하면 19,683을 얻고, 술(戌)에서 3배를 하면 59,049를 얻고, 해(亥)에서 3배를 하면 177,147을 얻는다. 이것은 음양(陰陽)이 덕(德)과 합하여, 기(氣)가 자(子)에서 시작하여 만물을 화생(化生)시키는 것이다.³⁴

위 글은 태극이 자(子)를 시발점으로 삼아 만물을 화생시켜 나가는 원리를 논해 놓은 것이다. 문장 첫머리에 ‘태극원기, 함삼위일’이라는 구절을 사용하여 태극은 원기 속에 셋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후 계속 3으로 분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논한 뒤에, 만물이 화생되어 가는 모습을 수로써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태극

28 같은 책, 太極者, 只是在陰陽裏, 今人說陰陽上面, 別有一箇無形無影底是太極, 非也.

29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래지덕(1525~1604)은 명대의 유명한 역학가로서 『周易集註』를 저술하였다.

3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민환의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31 『주자어류』 권125, “一便生二, 二便生四, 老子却說二生三, 便是不理會得.”

32 같은 책,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不合說一箇生一箇”

33 『한서』는 후한 초기에 班固가 저술한 책으로서 後漢시대부터 삼국 시대에 걸쳐 20여 명의 유명한 주석가들이 주석을 달아 놓고 있다. 당(唐: 618~907)나라 초기의 학자 安師古는 이 주석들을 집대성하고 자신 또한 주석을 보충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서』이다. 이하 이 장의 글들은 우실하, 2004, 『삼태극/삼원태극의 논리와 5음 12음의 산음수리체계』 『한국음악사학보』 제32집을 참고하였다.

34 太極元氣 函三爲一, 極 中也, 元, 始也. 行於十二辰, 始動於子, 參之於丑 得三, 又參之於寅 得九, 又參之於卯 得二十七, 又參之於辰 得八十一, 又參之於巳 得二百四十三, 又參之於午 得七百二十九, 又參之於未 得二千一百八十七, 又參之於申 得六千五百六十一, 又參之於酉 得萬九千六百八十三, 又參之於戌 得五萬九千四十九, 又參之於亥 得十七萬七千一百四十七. 此陰陽合德, 氣鐘於子, 化生萬物者也. 『漢書』, 卷21上, 『律曆志』第1上班固(鄧而古)注, 『漢書』(北京: 中華書局, 1992), 第四册, 964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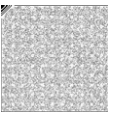


사진 1 전국시대 증후을묘의 종중에 보이는 삼태극³⁵
(자료: 『曾侯乙墓文物藝術』, 1996: 24 도판 37)



사진 2 신라 13대 미추 이사금(262~284)의 능으로 추정되어 이를 지어진 미추왕릉 지구 계림로 14호분 출토 장식보검(보물 635)에 보이는 삼태극³⁶

원기, 함삼위일' 속의 셋은 마지막 문구에서 '차음양합덕(此陰陽合德)' 이라고 나타나 '함삼(函三)' = '음양덕(陰陽德)' 임을 알 수 있다.

『한서』 「율력지」의 이 구절을 삼국시대 위(魏)나라 학자인 맹강이 여러 책들을 주석하면서 인용하였고, 이후 당나라 초기의 학자 안사고는 주석에서 다시 맹강을 인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기』 「율서」의 본문에는 없지만, 후대 학자들의 주석에서는 맹강의 논의와 함께 『한서』 「율력지」의 '행어십이진(行於十二辰) ... 차음양합덕(此陰陽合德), 기종어자(氣鐘於子), 화생만물자야(化生萬物者也)' 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³⁷ 인용의 예로 『사기정의』와 『사기색은』³⁸을 들 수 있는데, 『사기정의』는 당나라 장수절이 지은 것이고, 『사기색은』은 당나라 사마정이 저술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당나라 시대까지는 '태극원기 함삼위일' 이 보편적 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고태극도(古太極圖)』를 통해 본 세 원기

다음은 『고태극도』(아래 그림)를 통해 태극과 세 원기의 관계를 살펴보자. 『고태극도』³⁹를 보면 검은 것 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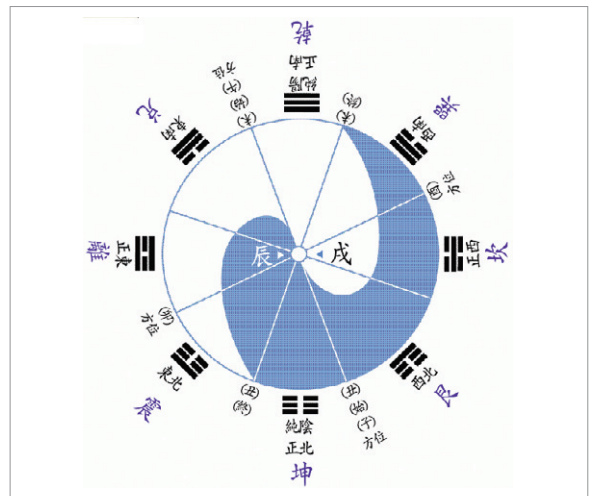


사진 3 고태극도

35 우실하, 2004, 『삼태극 / 삼원태극의 논리와 5음 12월의 산음수리체계』, 『한국음악사학보』 제32집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아래위 2층으로 구성된 편종기(編鐘架)의 각종 장식과 악기표면 그리고 함께 발굴된 각종 청동제품의 장식에서 삼태극 문양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보인다. 필자(우실하)가 인용한 위의 책에서는 외문(渦紋)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증후을묘의 명문을 통해서 증후을묘의 각종 유물들은 B.C.433년에 초(楚)의 혜왕(惠王)이 증후을 증후을에게 선물로 보내준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다(馮光生, 1996, p.139).

36 이영, 앞의 논문, p.114.

37 司馬遷 『史記』, 卷25, 「律書」, 第3, 1250頁 주석 3. 우실하, 위의 책, 재인용
『正義』 孟康云, "元氣始起於子. 未分之時, 天地人混合爲一, 故子數獨一也" 『漢書』 「律曆志」云, "太極元氣 函三爲一 行於十二辰, 始動於子, 參之於丑, ... 得十七萬七千一百四十七. 此陰陽合德, 氣鐘於子, 化生萬物者也."

38 司馬遷 『史記』, 卷25, 「律書」, 第3, 1252頁 주석 5. 우실하, 위의 책, 재인용
『索隱』, 漢書律曆志曰, "太極元氣 函三爲一, 行之於十二辰, 始動於子, 參之於丑得三..."

39 문양은 <http://blog.naver.com/w2097/146924617>에서 다운 받음

데에 흰 점이 있고, 흰 것 가운데에는 검은 점이 있다. 고회민은 호위의 『역도명변』에 들어있는 주자(朱子)의 말을 인용 해석하여 그것이 음양 중에 ‘생기(生氣)’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⁴⁰ 그러면서 그는 두 점이 『노자』 21장의 ‘그 아늑한 가운데에 근원적인 힘이 있고 진실함이 있다(其中有精, 其精甚眞, 其中有信)’를 의미한다고 보았다.⁴¹ 이와 같이 태극은 음기와 양기의 2기가 아닌 음양 중에 ‘생기’라고 표현되어진 무(無)의 요소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태극도』는 음양의 기와 음양 속의 생기(무無적인 요소의 기氣임)가 합쳐져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태극원기 함삼위일’ 속의 ‘함삼’ = ‘음양덕’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앞장에서 살펴본 한나라와 삼국 시대 그리고 당나라 시대까지는 태극이라고 하면 세 원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태극 이해의 보편적 방식이었다. 그리고 문양도 삼과문 형식의 삼태극 문양이 흔하게 사용되었다.⁴² 그런데 『고태극도』에서는 이것이 이과문 형식의 이태극 문양 속에 ‘무극적인 생기’로 그 표현 양상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다.

『고태극도』(‘고태극도’라는 이름은 청대에 호위가 붙임⁴³)는 명초 조중전의 『도학정중』이라는 책에 실려 있다. 누가 그렸는지 알 수가 없어 도가에서 전해오던 것을 조중전이 전한 것으로 해석하여 주립계의 『태극도설』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⁴⁴ 그림이 호위의 『역도명변』에 실려 있어 『도학정중』에 의거하여 호위가 직접 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⁴⁵ 연계 이전에 이 그림이 존재하였다면 앞에서 살펴본 삼과문 형식의 삼태극과 3기를 품고 있으면서도 음양을 크게 표현하고 생기(生氣)를 왜소하게 표현한 『고태극도』가 동시

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계 이후의 명·청 시대에 그려진 것이라면 주희의 성리학에 영향을 받아 삼과문 형식의 삼태극 문양이 『고태극도』처럼 이과문 형식으로 변형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세 원기는 글자 그대로 태극을 3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음양’ 중에 ‘생기’를 포함시켜 2원으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다.

4. 『원도』 속의 리

『원도』는 일명 ‘래지덕의 태극도’라고 불리는데, 가운데는 흰 원으로 되어 있다. 래지덕은 이 원을 만물을 주재하는 리(主宰者理)로 표현하고 있다. 가운데 표현된 리에 대해서 김상섭은 ‘이 리는 음양상수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림의 가운데에 원(圓)으로 표현한 것이다.’⁴⁶라고 한다. 이와 같이 리를 문양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음양의 기’ 속에 내재해 있는 것임을 글로써 밝히게 된다. 이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음양’ 중의



40 엄밀히 말하면 『고태극도』 이전에 존재하였던 『천지자연지도』에 대해 말하였으나 고태극도는 『천지자연지도』의 그림 중 가운데 두 점의 방향을 수정해 놓은 것 뿐 이어서 동일하게 해석하므로 본 연구자도 그대로 따름. 조위겸의 『육서본의』에서 채원정이 축의 은자로부터 얻었다는 『천지자연지도』는 『太極眞圖』라고도 말한다.

41 고회민, 정병석역, 1995, 『주역철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p.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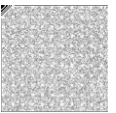
42 우실하, 2003, 앞의 논문, pp.5~37.

43 胡渭, 『易圖明辨』, 卷3, 『先天太極』, 其不曰河圖而謂之古太極圖, 何也? 蓋其時既從啓蒙以五十五數爲河圖, 而濂溪又自有所爲太極圖者, 故不名河圖曰太極圖, 而加古以別之. 김상섭, 2001, 위의 책, p.64, 재인용

44 한동석(1996)은 연계가 『고태극도』의 진리를 알고 이것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 놓은 것이 바로 그의 『태극도설』이라고 하여 『고태극도』가 먼저 존재한 것으로 해석한다. p.288.

45 김상섭, 앞의 책, p.61.

46 같은 책, p.56.



‘생기’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고태극도』 속의 두 점과 『원도』 가운데의 리는 문양으로 표시하면 음양의 기(氣) 속에 점 혹은 원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공통점은 있지만, 해석을 할 때는 ‘생기’라고 하거나 ‘리’라고 하는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 설명하는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회민도 『래지덕원도』의 중간 원(圖)은 래지덕이 『고태극도』의 음양 가운데의 두 점을 하나로 합하여 음양이 한 곳에서 교류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⁴⁷ 『고태극도』의 음·양·생기로 표현되는 태극과, 『원도』의 리본체(理本體)의 태극은, 문양으로서는 같이 표현될 수 있어서 태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서로 혼동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리(理) 표현의 태극 문양이 기(氣) 표현의 태극 문양으로부터 분화 발전해 가는 과도기이므로 생기는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비실체성인 리 사상 등장 이후 태극의 표현은 3원이 점점 2원화 되어 갔던 것이다. 이것이 한·당시대까지 보편화되어 있던 삼태극 문양이 주희 이후로는 삼태극이 사라지고 음양태극이 태극의 보편적 원리로 자리 잡은 까닭이라 하겠다.

결론

삼태극은 기(氣) 본위의 사상을 그 근원으로 삼는다. 이는 도가(도교)와 불교에서 발달한 사상으로 성격상 영

(靈)의 세계를 인정하는 세계관이다.⁴⁸ 그러나 조선은 공식적인 유교 국가로서 사후 세계나 영(靈)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교는 아래 단계에서 착실히 공부하여 위 단계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고, 사단(四端)을 넓히고 채우는 노력을 통하여 도달해야 하는 것이므로 무위의 관념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⁹

그리고 고려 사회는 마음을 닦는 근본으로서의 불교 가치(영적 세계)가 우위에 서고 나라를 다스리는 현세의 일(유교)은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 그에 비해 조선은 불교를 적대시함에 따라 현실 세계는 인정하고 사후세계나 내세는 부정하게 된다.

하지만 선대부터 누적되어 내려온 영적 세계관이 억불정책을 편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왕릉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논문을 쓴 이영도 조선이 불교와 무격을 배격하면서도 제사대상이나 능 조성의 구성물을 통해서 보면 전조(前朝)에서 지켜 내려오던 여러 제사들을 유교적 합리주의에 의해 재정비하여 수용하였을 뿐으로, 공식적으로는 유교적 태도를 취하지만, 사적으로는 불교, 도교, 무교의 행동 양식을 취하였던 것이라고 논한다.⁵⁰

따라서, 조선은 유교적 이념이 드러나야 하는 공식적인 곳에서는 이태극 문양을, 그리고 왕릉과 같은 이념의 테두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서는 삼태극 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선의 사상사에서 태극을 리와 기로 엄밀히 구분해서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해도,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이태극 문양을 써야 한다든지 아니면 삼태극 문양을 써야 한다든지 하는 식의 제한은 하지 않았

47 고회민, 정병석 역, 앞의 책, p.519.

48 이에 대해서는 우실하의 www.gaonnuri.co.kr에서 제공하는 여러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49 노사광, 앞의 책, p.169.

50 그 외에도 이능희의 『조선도교사』에 의하면 왕실에서 사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조선에 존재했던 소격서를 들 수 있다. 소격서는 고려 시대까지 하늘에 제사지내고 별에 기도하는 도관(道觀)들을 이조시대에 모두 병합하여 하나로 하고 소격전(昭格殿)이라 하였던 것을, 1466년(세조12)에 개칭하고 규모를 축소시켜 소격서라고 한 것이다. 소격서는 도교 승상의 근거지로서 임금들이 사사로운 소원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던 곳이다. 이조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의문이 일치하지 않아 설왕설래함으로 태조 자신이 소격전에 가서 의심을 풀고 천도를 결정했으며, 이후 정종, 태종 임금도 태일신(太一神)에게 제사를 지냈다. 연산군과 중종 때에는 소격서의 학파문제를 둘러싸고 왕실과 유신(儒臣)들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다. 연산군 때는 소격서가 일단 형식적으로 혁파되었으나 위판도 보존되고 초제도 여전히 집행되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광조를 선두로 한 신진사류들은 소격서의 학파를 건의하였다. 중종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조광조 등의 집요한 요청에 결국 1518년(중종 13) 소격서 학파에 동의하였다. 기묘사화로 신진사류가 숙청된 뒤 중종은 모후(母后)의 병중 간청이라고 하여 소격서를 부활시키고 초제와 기도를 행하게 하였다. 이는 고려에서 내려오던 도교 숭상 제도가 그 규모만 축소되어 계속 행해졌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조선 중기 학자 성현(成愼)이 지은 《용재총화》에 따르면 소격서에는 太一殿·삼청전 등 여러 탕이 있어서 옥황상제를 비롯한 수백 개의 神位와 像들이 마련되어 있고, 獻官·서원 및 道流가 분담하여 재초를 집행하였다 한다. 규모는 작았지만 재난이나 경사를 당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재초를 집행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던 것 같다. 이것은 여태까지 논의해 온 바와 같다. 첫째는 『래지덕원도』에서처럼 리를 문양에 표현할 수도 있는 애매성 때문이요, 둘째는 사적으로 도·불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리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임금도 가르침을 받고자 애쓴 부분이며, 경연을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유학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태극과 삼태극 문양은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사용되기 보다는 사용자의 수준이나 직관적 사고에 의해 혼재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극의 개념에 대해 이단 논쟁을 벌여가며 첨예하게 구분했던 왕실이나 유학자들은 이태극 문양과 삼태극 문양을 어느 정도 구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치인 유교적 이념이 드러나야 하는 곳에서는 이태극 문양을 사용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황에 따라 삼태극 문양을 사용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고종이 조선국기를 만들 때에는 음양태극인 이태극을 도안하고, 철종의 능이 조성될 때는 정자가각 신계석에 삼태극을 장식한 설명이 된다 하겠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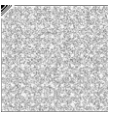
따라서 조선은 불교의 골 깊은 타락으로 인해 승유억불 정책을 공식적으로 펼치기는 하였지만, 사적으로는 도·불의 종교이념을 묵인한 사회라 하겠다. 이것은 고려사회가 불교의 정신적 이념이 주축을 이루고 유교가 보조 역할을 하는 사회였다면, 반대로 조선은 유교가 주축을 이루고 불교가 저변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사회였던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에서 살펴 본 이태극, 삼태극 문양의 사용은 리·기본체에 따른 태극의 사용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51 고종은 철종의 능을 매우 거창하고 웅장하게 꾸민다. 이는 왕실의 오랜 세도정치를 타파하고 왕권강화를 꿈꾸던 대원군의 뜻이기도 하였다. 철종의 능인 '예릉'은 조선 왕릉의 상설제도에 따라 조성된 마지막 능이다.

참고문헌

- 고회민, 정병석 역, 1995, 『주역철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 김상섭, 2001, 『태극기의 정체』, 동아시아
- 김진근, 1996, 『기철학의 집대성 왕부지의 주역 철학』, 예문서원
- 노사광, 정인재 역, 1987, 『중국철학사』(송명편), 탐구당
- 여배림·이이, 박종혁 편역, 1998, 『도덕경에 대한 두 개의 강의』, 서해문집
- 이능화, 김중은 역주, 1990,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 우실하, 2003, 「최초의 태극 관념은 음양태극이 아니라 삼태극 / 삼원태극이었다」 『동양사회사상』 제8집
- 우실하, 2004, 「삼태극 / 삼원태극의 논리와 5음 12울의 산음수리체계」 『한국음악사학보』 제32집
- 조민환, 2001, 「주자의 노자관」 『동양철학연구』 제24집, 동양철학연구회
- 한국동양철학회 편, 1982,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한동석, 1966, 『우주변화의 원리』, 행림출판
- 박응렬, 1996, 「주례계의 태극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박사논문
- 이영, 1992, 「조선시대 왕릉릉역의 건축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원 박사논문
- <http://theologia.pe.kr/>
- <http://www.cha.go.kr/>
- <http://www.songpr.com/>
- <http://blog.naver.com/vv2097/146924617>



Re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Sam-Tai-Ji

Kim, Myoung He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thics

Received : 2011. 12. 12 · Revised : 2012. 02. 09 · Accepted : 2012. 02. 21

ABSTRACT

Sam-Tai-Ji has been used as one of the Korean traditional symbol patterns including the emblem of the Seoul Olympic. Despite Sam-Tai-Ji included in 태극(Tai-Ji:太極), it has been interpreted widely as Sam-jae(三才)theory called Tian(天), Di(地) and Ren(人), or Tian, Di and Ren harmony thought(天地人 調和思想) by some religion groups and some intelligent people without exact philosophical proofs.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on Tai-Ji(太極) pattern follows.

Although Joseon dynasty selecting Confucianism as a ruling principle, it accepted Buddhism, Taoism and Shamanism by applying them to royal tombs not officially but privately. For example, If Confucianism has to be expressed in the public places, Er-Tai-Ji(二太極) pattern having an expressing type of Li-Ben-Lun(理本論) was employed, in the private places like royal tomb construction, Er-Tai-Ji(二太極) pattern having an expressing type of Qi-Ben-Lun(氣本論) was employed.

To figure out clear identification of Sam-Tai-Ji(三太極) and Er-Tai-Ji(二太極),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tudy on the change process of Tai-Ji(太極).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ai-Ji(太極) pattern has something to do with universe in these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In Tai-Ji(太極) pattern, Sam-Tai-Ji had been used more widely than Er-Tai-Ji(二太極) until the Han · Dang dynasty. The meaning is also indicated as Yin-Yang-Te(陰陽德) in the books like 『Hanse(漢書)』 『Yulryeokji(律曆志)』.

But, in the Chinese history, there was a change of the pattern into white spot Er-Tai-Ji(二太極) in 『KoTaiJiDo(古太極圖)』. It had been interpreted as “Yin-Yang and vitality(陰陽生氣).” since Song Dynasty when Confucianism settled down. In this process, unlike Wu-Ji(無極), Li(理) means immateriality. So Yin-Yang(陰陽) and Li(理) were expressed with the form of Er-Tai-Ji(二太極).

Therefore, Sam-Tai-Ji(三太極) is the pattern that stands for Yin-Yang-Te(陰陽德). It means that Yin-Yang(陰陽) gives a life to all the living things, grows them along with Te(德). It developed and flourished in Taoism and Buddhism accepting spirit existence. It is the universe view that Qi(氣) is an entity.

Key Words Er-Tai-Ji(二太極), Sam-Tai-Ji(三太極), Li(理), Qi(氣), Yin-Yang-Te(陰陽德)